선시로 수놓은 가을밤으로 초대

불교중흥실천협, 9월 1일 금강공원서 '선시법회'

네팔 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선시법회가 열린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원인선사와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을 9월 1일 오후 4시 부산 금강공원 및 차밭골 금어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별이 빛나는 밤 1부는 금강공원 숲속 둘레길 걷기 명상으로 시작을 알린다. 집결장소는 금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앞 잔디마당이며, 무더운 여름을 숲속 시원한 그늘에서 식히는 힐링시간과 함께 차와 저녁 공양이 제공된다.

2부는 불교 현황에 대한 설명과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꽃피는 불교토크가 개최된다. 토크에는 원인 스님과 의장 안국 스님,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장, 현익채 대불련 총동문회 고문, 김정혁 부산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참여한다.

3부는 원인 스님의 선시법회가 열린다. 원인 스님은 2010년 수도암 선원장을 역임하고 전국 선원에서 80안거를 성료했다. 현재 영주 대승사 회주로 선시집 10권을 낸 바 있다.

4부는 가을콘서트가 마련되며 여성불교중창단 백련싱어즈와 조수황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등이 꾸미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참선대법회 일환이자 자비실천의 장으로 네팔학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너, 나, 우리는 하나!"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고교생 마음캠프 열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정광고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마음등불' 캠프를 열었다.〈사진〉 '너, 나 하나라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나의 프로필 적기 △관하는 도리 △마음의 원리 △공생하는 우리 △촛불명상 등이 진행됐다. 19일에는 △마음을 돌려라 △참 나 찾기 △이야기 나누기, 회향문 쓰기 △회향식 등이 진행돼 고민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참가한 학생들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혜전 스님, 대구지원 혜화 스님, 목포지원 혜율 스님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스님들과 새벽예불을 하고 공양, 차담, 스님과 글 나누기 등 불교를 같이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도 가졌다.

지도법사로 나선 혜전 스님은 입재식 환영의 말을 통해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연선사 민족 사랑 정신 되새겨"

군위 인각사, 일연선사 열반 제729주기 다례재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정화)는 8월 19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 열반 제729주기 다례재 및 삼국유사 문화의 밤 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축제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인각사 주지 정화 스님, 김영만 군위군수, 심칠 군위군의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군위불교합창단원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이 참했다.

축제는 '화엄승무'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뒤 다례재서 육법공양과 종사영반, 일연선사 행장소개 등이 진행됐다. 이후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삼국유사 문화의 밤'이 펼쳐졌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법사로 나서 "일연선사의 민족 사랑과 문화예술 정신을 드높여 새롭고 밝은 문화정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민족의 문화창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역사회 孝사상 20년 일궈온 佛心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8월 30일 20주년 기념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관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20돌을 맞았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행복한 정토마을로 이끌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나눔 행사와 전문 호스피스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20주년을 되돌아보며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더욱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20주년 기념식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 이하 늘기쁜마을)이 20주년을 맞아 '늘기쁜마을 20주년 기념식 및 산사음악회'를 8월 30일 오후 5시 30분 관음사 수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에서 20년 동안 노력 봉사한 봉사자 및 우수 직원을 선정 시상하고 내빈들이 축사로 함께 축하한다. 아울러 관음사 수광보전 불사 회향을 알리고 대표이사 지현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광보전은 3년에 걸쳐 단청 불사와 함께 아미타 천불과 삼존불을 새롭게 모셨다. 수광보전은 요양원 건립을 목표로 기도하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새롭게 장엄됐다.

2부 산사음악회는 국악 무대로 꾸며진다. 늘기쁜마을은 수준 높은 국악 전통무대를 마련해 어르신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연자들이 중광지곡 상영산을 합주해 수준 높은 불교음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상영산은 영산회상 총 9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이다. 영산회상에서 영산은 영취산을 의미하며 영취산은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를 말한다. 영취산에 모여든 불자들을 영산회라 불렀으며, 이 영산회에서 불보살의 자비와 성덕을 찬양한 가사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相佛菩薩)'에 곡을 얹어 부른 것이 영산회상이다.

부산 관음사 수광보전 앞
우수봉사자 시상 비롯해
국악무대 산사음악회 열어
"대자대비 실현 법인 성장"

이어 서산대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회심곡과 생소병주, 가야금 산조 등도 연주된다. 회심곡(回心曲)은 불자들에게 경전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은중경〉에 곡을 붙여 만든 것이다.

무대는 조순자 국가무형문화재 30호 가곡예능보유자, 이정규 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이수자, 이인수 前대구시립국악단장, 중요무형문화재 20호 이삼 스님 등 여러 전문 국악인이 꾸민다.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마음을 고요하고 선하게 해주는 영산회상과 회심곡 등 불교음악을 전문 국악인의 연주에 담아 선사하고자 한다"며 "무대를 꾸미는 단원들은 모두 문화재급 실력을 갖췄으며 특히 이삼 스님은 대금연주로 국제적인 명성을 갖추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어온 복지 활동으로 자비(이타정신)와 지혜(전문성) 그리고 원력(행복 추구)을 추구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현한 마을로 이끌겠다"고 전했다.

늘기쁜마을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중생 구제와 대자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1998년 3월에 설립됐다. 늘기쁜마을은 특히 효 사상을 강조하며 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업에 주력해왔다. 먼저 두 송복지관을 운영해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해 법인 운영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로잔치, 경로관광을 매년 실시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기리기 위해 자비로운 어머니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경로당 방문 사업을 10년간 펼쳤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 장기요양사업에 적극 참여해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2개소, 방문요양 사업 등을 운영해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민건강공단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 관음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20주년을 맞았다. 늘기쁜마을은 전문복지를 통한 정토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며 부처님의 자비나눔 봉사를 실현하는 모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경로당 방문 모습.

부산불교, 생명 살리는 불교 운동 전개

부산불교교육대학 살기 좋은 부산 캠페인

자살과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스님과 불자들이 나섰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8월 19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과 일대에서 '2018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1부 식전 전통문화 무대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2부에서는 격려사 및 인사 말씀으로 캠페인의 의미와 생명의 존귀함을 널리 알렸다.

학장 범혜 스님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은 자신은 물론이고 유족이나 사회에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되돌아오는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 재가불자들이 함께 부산 서면 일대를 돌며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불자들이 서면 중심가 일대를 돌며 '자살 예견신호와 대처법'과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할 교통문화질서' 내용을 담은 전단지 3000장을 시민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회원 스님들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 및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산교수불자연합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도 함께 참여해 대대적인 행사로 확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통문화서 느끼는 사찰 고유 아름다움

선운사, 문화재 프로그램 성황

선운사 전통산사 문화재활용프로그램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8월 18~1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천년고찰 선운사, 그 시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만세루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한주 법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참가자 80여 명이 동참했다.

첫날에는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소개와 문화재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지역 가야금 전수자의 공연, 도심 스님의 불교와 효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도예체험, 선운사 석류원류 탁본체험, 서각, 소조상 만들기,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음양오행 동양철학

내가본 운명학

신개념 지침서

운명은 사람을 지배한다.
운명을 알고나면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숙명(宿命)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수 있다.

동양 철학인 음양오행 사상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과 지구의 자전 공전의 움직임과 삼라만상의 신비하고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으로서 자연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년.월.일.시.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것을 추명학으로 풀이하면 사주팔자(四柱八字)라 하는데 사주팔자에는 숙명(宿命)과 운명(運命)으로 분리해서 정해진다.

– 본문中에서 –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양정진(덕광스님) 著 / 신국판 / 268쪽 / 정가 20,000원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불지혜佛智慧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통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불지혜로 꿰뚫어 자상히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징주해·주진통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신국변형판 / 936쪽 / 정가 70,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2018년 불교학과 5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9월 6일(목) 오후 1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① 근본불교 (아함경 2) ② 반야심경 ③ 유식불교 ④ 인도불교, ⑤ 중국·한국불교 ⑥ 법화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스님, 최종남 교수, 정병조 교수,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박종 교수
2년차	과목	⑦ 화엄경 ⑧ 정토불교 ⑨ 대승불교와 밀교 ⑩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⑪ 불교문화와 미술, ⑫ 선불교
	교수진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주명철 교수, 정성준 교수, 이미령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 교수

■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저녁반·통신반)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8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 4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9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반 [9월 5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반 [9월 8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